

## 종이 되신 주님 *The Master Becomes a Servant*

요한복음(John) 13:3-16

오늘 본문 1 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이것을 한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가 아닌 무조건적인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Verse 1 says, “Jesus knew that the time had come for him to leave this world and go to the Father. Having loved his own who were in the world, he now showed them the full extent of his love.” He loved His people; He loved them to the end. When He loves us, He loves all the way. His love is not conditional: “Well, if you do this, I will love you. If you don’t, I won’t love you.” He is different from us. It’s unconditional. To the end and all the way.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먼 길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뭐? 내 돈을 다 탕진했다고? 창기들과 함께 흥청망청 다 먹어 치웠다고?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고 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끌어안으며,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When the prodigal son in the Book of Luke returned home from a distant country, did the father say, “What? You have spent the money I gave you in your wild living. You devoured that money with harlots? Hey, servants, kick him out of here.”? No! The father hugged him and said, “My son, welcome home. I’ve been waiting for you. Let’s have a party. Let us be glad and celebrate.” That is a father’s heart.

저녁 먹는 중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는데, 어떻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었을까요? 바로 그의 생각을 통해서입니다. 유다는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가 예수님을 따른 목적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금력을 잡겠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혹은 생각은 문인데 그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2:6 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저는 도적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라고 했습니다.

If we contrast that love with Judas, we see that during dinner the devil put into Judas’ heart to betray Jesus. How could the devil put that thought - betray Jesus - in his heart? It was through his thoughts. He was greedy; the reason that Judas the betrayer followed Jesus was because of money. Judas wanted to gain power through money. Your heart or thoughts are a door. Through that door the enemy can come in. The Gospel of John 12:6 says, “Judas was a thief, as keeper of the money bag, he used to steal money from the money bag what was put in.”

우리에게 분노나 미움, 욕심이나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원수들이 침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길, “노하지 말라, 네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탐욕을 버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탐욕이나 분노,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열린 문이 됩니다.

When we have an anger, hatred, greed and fear in our heart, these can become our strongholds. Through these strongholds, the devil can come in. That's why the Bible tells us: don't get angry, don't hate your neighbors, don't be greedy, and do not fear. Angry, hatred, and greed are an open door for Satan.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자 가롯 유다는 몹시 실망하고, 예수님을 돈을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값인 은 삼십 개를 받고 팝니다. 은 삼십은 당시 성인 노예의 몸값이었는데 자신의 꿈이 좌절되자 예수님을 노예로 취급한 것입니다. 창세기 37:28 에 보면 요셉은 소년이였기 때문에 은 이십에 팔렸다고 합니다. Judas was so disappointed because Jesus said that He will be crucified on the cross. That's the reason Judas sold Jesus for thirty silver coins, so that he could get more money – he wanted to treat Jesus like a slave. At that time, thirty silver coins were the price of one adult slave. In the Old Testament book of Genesis 37:28, Joseph's brother sold him for twenty silver coins because he was only a boy.

본문으로 돌아가,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깊은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는데 제자들이 하는 짓이라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 너희들 언제 철들래? 참으로 한심하다 한심해!” 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아니하고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발을 닦으시기 시작합니다.

Back to today's scripture reading, we see that Jesus is thinking about His crucifixion. His heart was exceedingly sorrowful. But the disciples were fighting over their seats, over their position. Whenever they are together, they fight all the time and ask, “Who is greater?” Did Jesus ever say: “Hey, you guys stop it. When are you going to grow up? You are all acting childish.”? No, he never said anything of the sort. He just got up, took off His garments and wrapped a towel around His waist. After that, He poured water into a basin and began to wash their feet and wipe them with that towel.

여러분 지도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머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지도자가 되거나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의 방법을, 그분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Do you want to be a leader? Do you want to be the head of something? There is nothing wrong with being a leader or the head. But you have to follow His way, His principles.

그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나중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What are His principles? Be a servant, be the last. Humble yourself. Then He will make you the first. He will make you the head.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 베드로는,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께서 자기의 발을 씻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발 씻기는 일이 하인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관례에는 손님이 오면 종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깁니다.

When He came to Peter, he said to him, “Lord, are you washing my feet? How can you do that? No, I won't let you.” Why didn't Peter want Jesus to wash his feet? It's because that was a servant's job. In Jewish custom, the servants washed the guest's feet.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고 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하길, “안됩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고 하자 베드로는 “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주님께 말하길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Jesus replied, “You don't understand what I am doing now but later you will understand.” Then Simon Peter said, “No, you will never wash my feet.” Jesus answered, “Unless I wash you, you have no part with me.” Peter thought, I don't know what it is must be, but I bet it must be something good. Simon Peter then replied, “Then Lord, not just my feet but my hands and my head also.”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고 하십니다. 이는 누가 자기를 팔자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Jesus answered, “He who had a bath needs only to wash his feet; his whole body is clean but not all of you though.” This was because He knew who would betray Him. When He had finished washing their feet, He put on his garments and asked them, “You call me ‘Teacher’ and ‘Lord,’ and rightly so, for that is what I am. Now that I, your Lord and Teacher, have washed your feet, you also should wash one another's feet. I have set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do as I have done for you.”

예수께서는 겸손과 섬김을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백 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닌 시범입니다.

Jesus showed them humility and servanthood in action. He said,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His leadership is servanthood leadership. We know what love is and we know what faith is. We probably have heard these words more than hundred times. But what we need is a demonstration not an explanation.

주님은 또 말씀하시길, “이방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 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Jesus once said, “You know that the kings over the Gentiles exercise lordship over them, and they exercise authority over them. But not so with you. Whoever wants to becom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and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your slave. I tell you the truth, no servant is greater than his master and no messenger is greater than the one who sent him. Now you know these things, if you do them, you will be blessed.”

여러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do not be afraid to serve someone. Jesus is saying even today,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고 남을 섬기는데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Jesus was the Son of the living God but yet He came to this world and He did not hesitate to serve others. The master became a servant for us. I want all of you to remember that the Kingdom of God is for those who serve others and I pray that we all become good and faithful servants.